

## 의과대학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예방의학교실<sup>1</sup>

유정선 · 양원선 · 이경은 · 이상은 · 이승규 · 이후연<sup>1</sup> · 박은철<sup>1</sup>

= Abstract =

### Gender Difference in Self-Esteem of Medical Students

Jeong-seon Yoo, Wonsun Yang, Kyong-eun Lee, Sang-eun Lee, Christopher Seongkyu Lee,  
Hoo-yeon Lee<sup>1</sup>, MD, MPH, Eun-Cheol Park<sup>1</sup>, MD, PhD

*Dept. of Medicine, Dep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sup>1</sup>,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Purpose:** Many studies from the past have indicated that women tend to have lower self-esteem than men. This cross-sectional study looks for this tendency in a medical school in Korea, where men are still thought to comprise much of a dominating force despite the current growth in number of female students in student body. Along with the cross-examination of possible gender difference in self-esteem, the significant and relevant factors will also be sought and discussed.

**Methods:**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from 202 junior and senior students (125 male and 77 female students) in a medical school in Korea. Self-esteem was determined using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reliability = 86% in our stud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gender difference in self-esteem and statistical relevance in each covariate.

**Resul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between male and female medical students.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self-esteem include school rank, physical attractiveness, and depression, among which of them, depression was the strongest.

**Conclusion:** Innate limitation of cross-sectional studies and evaluation of selected junior and senior students of a single medical school could possibly explain for the absence of gender difference in self-esteem in this study. Academic achievement and physical attractiveness are shown to be positive factors for self-esteem, while depression puts negative force in one's self-esteem.

---

**Key Words:** Self-esteem, Gender, Medical Students

---

교신저자: 박은철, 국립암센터 연구소, 책임연구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809번지  
Tel: 031)920-2151, Fax: 031)920-2159  
E-mail: ecpark@ncc.re.kr

## 서 론

자아존중감 (self-esteem)이란 개인적으로 그 스스로가 자기를 유능하고, 중요하고,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 즉, 우리의 자아개념과 연관된 개인적인 가치감으로서, 자아개념보다 평가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자아존중감은 본인과 타인에 대해 느끼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Rosenberg (1965)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좋은’ (good enough) 또는 ‘좋지 않은’ (not good enough) 것으로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정서적 갈등을 겪게 되고 장애적인 행동을 야기하게 된다고 한다. 역으로 말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그 중에서도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에 대한 연구 (Meddin, 1986; O'brien, 1991; Tiggerman & Rothblum, 1998; Kling et al, 1999; Quatman, 2001)에서는 많은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서 자아존중감이 낮게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로 첫째, 성역할의 남녀차를 들 수 있다. 성역할이 남성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이지만, 여성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둘째, 관계 형성에 있어 남녀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남성은 또래 집단 속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 하는 반면, 여성은 많은 것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외모에 대한 문화적인 편견과 인식이 여성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중 매체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외적인 면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뚜렷하다. 국내에서 청소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실제 과체중인 사람은 2.6% 밖에 되지 않으나, 78.5%가 현재보다 더 적은 체중을 원했다. 또한 실제 체질량지수보다 자기가 인식하는 체중문제가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 팔목할만한 여권신장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혹은 병원에서 여성은 아직 소수파이며, 전공의나 교수 선발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잔존하는 등 남성 우위적인 보수성향은 여전히 지배적이다. 병원 밖 사회에서도 남성 의사는 1등 신랑감으로서 꼽히는 반면, 여성 의사는 그보다 낮은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 여자 의대생은 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의대생에 있어서 남녀간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3년 7월 현재 한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본과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한다.

## 대상 및 방법

### 가. 연구 대상자

2003년 7월, 한 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20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성별과 자아존중감 및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사하였다. 재적 인원 3학년 164명, 4학년 162명 중, 조사에 응한 인원은 3학년 82명, 4학년 102명이었다.

### 나. 조사 내용

의과대학 본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자아존중감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변수와 우울을 조사하였다.

#### 1) 일반적 변수

일반문항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과 연령을, 사회경제학적 특성 중 학년, 성적, 교우관계, 한달 용돈, 가족 월수입을, 신체적 상태 중 키, 체중,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체질량지수는 조사된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중 체중과 신장, 한달 용돈은 조사대상자가 직접

**Table I.**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unit: %, Mean±SD)

Variables	Male(125)	Female(77)	Total (202)	p-value
Age	25.49±2.15	24.96±1.66	25.29±2.0	0.067
Grade 3rd year	48 (38.4)	34 (44.2)	82 (40.6)	0.419
4th year	77 (61.6)	43 (55.8)	120 (59.4)	
Marriage/Couple couple	67 (53.6)	42 (54.5)	109 (54.0)	0.896
single	58 (46.4)	35 (45.5)	93 (46.0)	
Height (cm)	175.5±4.5	163.3±4.4	170.9±7.4	<.001
Weight (kg)	69.3±7.5	49.3±4.8	63.6±11.7	<.001
BMI (kg/m <sup>2</sup> )	22.9±2.2	18.7±1.6	21.5±2.8	<.001
Physical attractiveness*	18 (14.4)	8 (10.4)	26 (12.9)	0.408
above average				
average	107 (85.6)	69 (89.6)	176 (87.1)	
Depression <sup>†</sup>	18.1±7.6	19.2±8.7	18.5±8.0	0.336
Monthly allowance (10,000won)	45.4±20.3	50.3±44.1	47.3±31.5	0.365
Family income (10,000won)	10 ( 8.7)	2 ( 2.9)	12 ( 6.5)	0.003
<100				
100~249	19 (16.5)	9 (12.9)	28 (15.1)	
250~399	42 (36.5)	12 (17.1)	54 (29.2)	
400~599	26 (22.6)	26 (37.1)	52 (28.1)	
>600	18 (15.7)	21 (30.0)	39 (21.1)	
School rank upper 1/3	15 (12.0)	18 (23.7)	33 (16.4)	0.001
middle 1/3	71 (56.8)	50 (64.8)	121 (60.2)	
lower 1/3	39 (31.2)	8 (10.5)	47 (23.4)	
Peer relationship very good	6 ( 4.8)	4 ( 5.2)	10 ( 5.0)	0.420
good	61 (48.8)	43 (55.8)	104 (51.5)	
moderate	51 (40.8)	29 (37.7)	80 (39.5)	
Bad / very bad	7 ( 5.6)	1 ( 1.3)	8 ( 4.0)	

\* Questionee were asked to subjectively judge their own physical attractiveness.

<sup>†</sup> CES-Depression scale was used ranging from 0-60 with 60 indicating the highest score possible; Depression is present if score ≥16 (Cronbach alpha=0.89)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외의 항목들은 제시된 보기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성적은 상위 1/3, 중위 1/3, 하위 1/3 중 하나를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평균, 평균이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교우 관계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혹은 매우 나쁨의 네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족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에서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은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Dr. Rosenberg (1965)가 고안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이용하였다.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1, 2, 4, 6, 7번에서는 정말 그렇다=3, 대체로 그렇다=2, 대체로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0점으로 점수를 매기고 반대로, 문항 3, 5, 8, 9, 10번에서는 정말 그렇다=0, 대체로 그렇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거의 그렇지 않다=3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척도

**Table II.** Rosenberg Self-esteem Scale Analysis

	Male (125)	Female (77)	P-value
1. I feel that I'm a person of worth, at least on an equal plane with others.	2.336±0.6469	2.208±0.6947	0.185
2. I feel that I have a number of good qualities.	2.256±0.6945	2.221±0.5287	0.721
3. All in all, I am inclined to feel that I am a failure.*	2.224±0.8019	2.286±0.8088	0.597
4. I am able to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2.224±0.5215	2.169±0.6156	0.497
5. I feel I do not have much to be proud of.*	1.968±0.8418	1.870±0.8327	0.421
6.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yself.	2.208±0.6130	1.974±0.6878	0.013
7. On the whole, I am satisfied with myself.	2.128±0.6836	1.909±0.7640	0.036
8.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	1.240±0.8072	1.078±0.6441	0.137
9. I certainly feel useless at times.*	2.128±0.7929	1.935±0.8482	0.104
10. At times I think I am no good at all.*	2.176±0.8986	1.987±0.9527	0.158
Total	2.001±0.4939	1.851±0.4950	0.082

Cronbach alpha = 0.86

The scale ranges from 0-30, with 30 indicating the highest score possible.

10 items are answered on a four point scale ranging from strongly agree to strongly disagree.

For items 1,2,4,6,7, strongly agree = 3, agree =2, disagree=1, strongly disagree = 0

For items 3,5,8,9,10 with \*, which are reversed in valence, strongly agree = 0, agree=1, disagree=2, strongly disagree=3.

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30점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그 값이 커진다.

### 3) 우울 (depression)

우울여부 측정은 CES-D 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로 측정하였다. CES-D 척도는 우울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Radloff (1977)가 개발한 도구로서,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0~3점까지의 4점 척도로 되어 있고, 최저 0점에서 최고 60점을 얻을 수 있다. 총점이 16점 이상이면 우울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 다. 분석 방법

이번 연구의 통계적 검정은 PC-SAS (version 8.01)

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혹은 빈도를 기술통계 분석하였고,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사용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각 항목별로 점수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령, 체질량지수, 한달 용돈, 우울과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성별, 연애 여부,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 가족 월 수입, 성적, 교우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과 ANOVA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연령, 한달 용돈, 가족 월 수입, 연애 여부, 체질량지수, 성적과 교우관계,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통제된 상태에서 성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량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III.**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elf-esteem and Covariates

Variables	Self-esteem	Age	BMI	Money	Depression
<b>Male</b>					
Self-esteem	1.0000				
Age	-0.0298	1.0000			
BMI	-0.02321	0.2937 <sup>†</sup>	1.0000		
Montly Allowance	-0.06076	0.1214	-0.0709	1.0000	
Depression	-0.2663 <sup>†</sup>	-0.1384	0.0321	-0.1192	1.0000
<b>Female</b>					
Self-esteem	1.0000				
Age	0.0832	1.0000			
BMI	-0.3212 <sup>*</sup>	0.0108	1.0000		
Montly Allowance	-0.0985	0.1364	-0.0584	1.0000	
Depression	-0.6408 <sup>†</sup>	0.0910	0.3790 <sup>*</sup>	-0.0502	1.0000

\*p<0.05, <sup>†</sup> p<0.01, <sup>‡</sup> p<0.001

## 결 과

조사된 의과대학생들은 남자 125명과 여자 77명으로 총 20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자의 경우 25.5세, 여자인 경우 25.0세이었고, 4학년이 59%이었다(Table I). 현재 연인이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54%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여학생의 가족소득과 학교성적은 남학생보다 높았다. 한편, 우울은 20문항으로 이뤄진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에서 16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값이 18.5점으로 높은 우울도를 보였으며 CES-D 척도에 대한 신뢰성은 분석결과 충분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Cronbach alpha=0.89).

자존감 측정도구로 사용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상 10항목의 평균 점수는 남학생의 경우 2.001점이었고, 여학생인 경우 1.851점이었다. ‘자신을 좀 더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8번 문항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1.240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1.078로 가장 낮았다(Table II).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차이가 있는 항목으로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와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이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상관계수는 -0.2663이었고, 연령과 체질량지수의 상관계수는 0.2937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체질량지수는 -0.3212,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0.6408, 체질량지수와 우울은 0.3790이었다(Table III).

자아존중감과 다른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외모를 ‘보통’이라고 답한 집단과 ‘보통이상’이라고 답한 집단간에만 자아존중감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보통이상의 집단에서 23.6점으로 보통의 집단의 19.9보다 컸다(Table IV). 자아존중감 점수는 남자가 20.9점, 여자가 19.6점으로, 남자가 1.3점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V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함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이다.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변수는 성적과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리고 우울이었다. 이중 우울이 통계적 유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적의 경우 중위 1/3이 하위 1/3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1.99점 높았다. 성적이 상위 1/3인 집단은 하위 1/3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2.24점이 높았다(p-value=0.0561). 외모의 주관적 평가를 보면 자신을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2.78점

의과대학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Table IV.** Self-esteem by Covariates

Variables	self-esteem	p-value
Sex male	20.9±4.9	0.0825
female	19.6±5.0	
Marriage/Couple		
single	19.9±5.6	0.1461
couple	20.1±4.3	
Physical attractiveness		
above average	23.6±4.7	0.0007
average	19.9±4.8	
Family income <100	18.1±6.5	0.3594
100-249	19.9±6.0	
250-399	21.2±5.3	
400-599	20.6±4.0	
>600	20.5±4.4	
School rank		0.5319
higher1/3	21.4±4.1	
middle1/3	20.2±4.6	
lower 1/3	18.7±6.1	
Peer relationship		0.1884
very good	24.3±4.7	
good	20.3±4.6	
moderate	20.5±5.1	
bad/very bad	16.4±6.0	

높았고, p-value는 0.0052로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우울은 CES-D 척도가 1점이 높아지면 자아존중감이 0.21점씩 감소하였다 (p-value<0.001).

## 고 찰

O'Brien 등(1991)은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아존중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무력하고, 남성 의존적 존재라는 사고를 주입 받아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사회 구조적 이론에 따르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인 가사 업무는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에서는 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 다르게 의과대학생만을 대상으로

**Table V.**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elf-esteem by Covariates

Variables	Estimates	P-value
Sex		
males		
females	-1.11	0.2506
Age	0.06	0.7196
School rank		
upper 1/3	2.24	0.0561
middle 1/3	1.99	0.0256
lower 1/3		
Physical attractiveness		
above average	2.78	0.0052
average		
Depression	-0.21	<.0001
BMI (kg/m <sup>2</sup> )	0.02	0.9273
Marriage/Couple		
single		
couple	-0.04	0.9575
Monthly Allowance (10,000won)	-0.01	0.1658
Family Income (10,000won)		
<100		
100-249	0.06	0.9721
250-399	0.67	0.6601
400-599	0.36	0.8158
>600	-0.11	0.9429
Peer relationship		
very good	2.99	0.2005
good	1.10	0.5330
Moderate	1.56	0.3862
bad / very bad		
Intercept	21.25	0.0015
	R <sup>2</sup> = 0.28	

행해진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대생은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의 인구 집단이다. 교육 수준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므로 여자의 자아존중감이 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또한 여자 의대생은 졸업 후 전문직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화 이론이나 사회 구조적 이론에서 벗어나는 집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의대생의 특성 외의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자아존중감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인이 되는 과정

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점차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Fertman & Chubb, 1992).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5.29세, 표준편차 2.0세로 모두 20대 중반에 해당한다. 즉,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잘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비만한 사람에서 정신적 증상이나 정신병리학적 인 측면, 또는 개인적 성격 등은 정상인 사람과 유의한 차이가 없다 (Casch & Prunzinsky, 1990; Kim & Kim, 2001; Friedman, 2002). 그러나 이러한 비만한 사람 중 특정 집단, 예를 들어 체중 감량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체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폭식에 시달리는 사람에서는 우울증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비만도보다 스스로 자신의 외형에 대해 평가하는 '신체 이미지'가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신체 이미지란 자신의 신체 모습과 기능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인식이다. 최근 들어 특히 여성에서는 마른 체형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객관적인 지표와 다르게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문제시되었다. 대규모 조사 결과 미국 남성의 52%와 여성의 66%가 자신의 체중에 불만족하고 있었다. Sarwer 등 (1998)에 따르면 그 불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우울증은 증가하고 자아 존중감은 감소한다. 이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체질량지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 $p$ -value=0.9273), 외모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p$ -value=0.0052). 이는 신체 이미지가 매개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체질량지수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정도가 달라짐을 증명한 기존의 연구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여성 설문답변자 77명 중 10명이 체중을 기입하지 않았고, 신장과 체중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스스로 기입하는 형식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비만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주로 과체중인 사람이 체중을 기록하지 않거나 체중을 낮춰 기록한 경향이 있었다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강한 상관성을 보였다 ( $p$ -value<0.001). 이는 두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울함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아졌을 수 있고, 역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져서 우울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자아존중감은 성취욕구의 충족여부와 관련이 있고, 학생의 경우 이는 학업성취도로 대변될 수 있다. 연구결과 성적이 하위 1/3인 집단에 비해 중위 1/3인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 $p$ -value=0.0256), 성적이 상위 1/3인 집단은 경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 $p$ -value=0.0561). 이는 성적을 등수로 하지 않고, 상중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서 생긴 오류로 추측된다. 이론적으로는 세 집단이 각각 33% 정도로 비슷해야 하나, 상위 1/3은 16.4%, 중위 1/3은 60.2%를 각각 차지했다. 하위 1/3은 23.4%로 33%에 근접한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설문에 적게 응했다기보다는, 상위 1/3과 중위 1/3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학생들이 중위 1/3으로 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사대상 학교의 경우 본과 3학년까지는 성적을 등수가 아닌 학점으로 고시하므로, 이러한 경향은 본과 3학년에서 더욱 두드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낮은 자아존중감, 자신감, 자기통제 그리고 심한 냉소주의적 경향을 갖는다. 여러 가치들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돈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달 용돈과 가족의 월수입으로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상태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두 변수는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의대생의 특성상 의사라는 전문직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낮은 경제상태가 자아존중감을 낮추지 못하거나, 활동범위가 기숙사와 학교 사이로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 형태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친구는 사회적 지원의 한 형태로서, 긍정적인 자아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아동기 후기부터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교우관계도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대학생 시기에는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보다 경제력이

의과대학생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나 업무의 성취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설문대상을 한 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4학년으로 국한하였으므로 전체 의대생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진다. 또한 여성 77명 중 10명은 체중을 적지 않았고, 이는 중요한 변수인 체질량지수와 자아존중감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는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항목 수가 10개로 적었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항목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월경 주기와 같이, 여자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수의 영향은 고려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 연구 중 의대생으로 조사 대상을 국한시킨 경우가 적으므로 대상의 특이성이 있고,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본과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과와 구별되는 의대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표본선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선(1999). 의과대학생의 성격과 학업만족도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 연구. *한국의학교육*, 11(2), 271-284.
- 조윤주(2003).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과 자아존중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Cash TF, Prunzinsky T(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Cash TF, Prunzinsky T(1990). *Body Images: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ew York, NY, Guilford Press.
- Fertman CI, Chubb NH(1992). The effects of a psychoeducational program on adolescent's activity involvement,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Asolescence*, 27, 517-526.
- Friedman KE(2002). Body imag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bes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Obesity Research*, 20, 33-41.
- Kim O, Kim K(2001). Body weight, self-esteem, and depression in Korean female adolescents. *Adolescence*, 36(142), 315-322.
- Kling KC, Hyde JS, Showers CJ, Buswell BN(1999). Gender Differences in Self-Esteem: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5(4), 470-500.
- Meddin JR(1986). Sex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self: findings from United States national Surve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22, 807-812.
- O'Brien EJ(1991). Sex differences in components of self-esteem. *Psychol Rep*, 68, 241-265.
- Quatman T(2001). Gender difference in adolescent self-esteem.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1), 93-117.
- Radloff LS(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rwer DB, Wadden TA, Foster GD(1998). Assessment of body image dissatisfaction in obese women: specificity, severity, and clinical significance. *J Consult Clin Psychol*, 66, 651-4.
- Tiggerman M, Rothblum ED(1998).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consequences of perceived overweight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ex Roles*, 18, 75-86.